

'뇌관' 터진 정치권, 입법전쟁 불 붙었다

민주당, 지역당 '군기잡기'

광주시당, 북구·남구지역위원회 평가 감사

악법저지 참여 저조·강운태 복당 서명 조사

■ 미디어법 직권상정... 정국 급랭

與 "상정 불가피" 野 "원천 무효"

민주 전 상임위 개최 실력 저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었던 미디어 관련법을 전격 상정함에 따라 2차 입법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 즉각적으로 의원 총회를 열고 국회 모든 상임위 개최를 실행 저지하기로 결정,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25일 오후 고홍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과 방송 경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일괄 상정했다.

고홍길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여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에게 결과를 보고받고 "3당 간사에게 의사일정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며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를 밝힌 채 차례 내리쳤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계류법안 등과 관련해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아무도 직권 상정을 하리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도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것이냐"며 위원장석으로 뛰어들었으나 상정을 저지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며 고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 등의 보호를 받은 채 회의장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

하겠다는 야당의 지연술에 더 이상 협의 및 합의의 의미가 없다며 상정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강행한 것은 임시국회 회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홍길(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 도중 기습적으로 미디어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위원장을 방어하려는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 '단호한 처리' 주문이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강경 쪽으로 반전됐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미디어 관련법 직권 상정은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이 법안 상정시 법안명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미디어법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직권 상정 직후 개최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문방위에서 의원총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문방위를 사실상 잠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각 상임위 운영을 실행 저지하기로 결의,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

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또,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위원장이 간사협의를 거쳐 애초 계획에 없던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5개 쟁점 법안의 대토론을 안건으로 올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결론 없이 산회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할 경우 들끓을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여야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중앙당이 광주시당은 물론 북구와 남구 지역위원회에 대한 평가 감사에 나서는 등 '군기잡기'에 돌입,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 지역위원회에 대한 평가감사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광주시당에 대한 평가감사에 나선 배경은 지난 14일 광주 충

장로에서 열린 'MB 악법 저지 대회'에 참가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앙당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최소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200여명에 그쳐, 망신을 당했다는 것. 특히, 광주는 민주당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날 행사에 대해 지도부의 심경이 상당히 불편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시당 일부 고위 당직자들은 행사 준비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

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당에 대해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앙당 행사에 인원 동원이 미진했다고 마치 문제가 있는 듯이 평가 감사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중앙당이 행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광주시당에 대해 평가 감사에 나선 것은 과잉 대응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남구 지역위원회에 대한 중앙당의 감사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중앙당의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주 남구지역 기초의원 8명은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당에서 이날 행사에 대해 지도부의 심경이 상당히 불편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시당 일부 고위 당직자들은 행사 준비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광주시·구 여성의원협의회장에 이명자 시의원

○광주지역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광주시·구 여성의원협의회'는 25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대 회장에 이명자(사진) 광주시의원을 선출했다.



또 총무에는 박신에 서구의원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광주지역 여성의원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설명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와 5월 여성계 개최, 여성단

체와 연대, 전남지역 여성의원과의 교류 사업 등을 펼쳐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역 여성문제 공동 대응과 여성의원간 의정활동 공유를 위해 지난 2007년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전남지역 여성의원들과도 교류 사업을 펼치는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사무처장 모집

○한나라당은 오는 3월6일까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각각 공개 모집한다.

자격 요건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고 공공단체·언론사·기업·시민단체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 대통령 초심 강조 취임식 날 벵타이 차림 출근 盧 전 대통령 고향 마을선 주인공 없이 조출한 잔치

■ 전·현직 대통령의 퇴임·취임 1년

집무실에서 일정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훑어본 뒤 오전 10시께 여민관으로 이동,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확대비서관 회의의 주

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조출한 1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를 이날 저녁 주재하고 정부 출범 후 1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시 진영을 봉하마을에서는 귀향 1년을 맞는 잔치가 열렸으나 주인공이 빠지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겨온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마저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쌀렁했다.

이날 봉하마을 주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귀향 1년을 맞아 돼지 2마리를 잡고 250명분의 국밥을 준비해 노 전 대통령의 비서관과 경호실, 사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등과 나눠 먹으며 조출한 잔치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의 귀향 1년을 축하하는 화환 6개가 입구에 놓인 봉하마을 회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 지난 1년간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가운데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직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자 전직 대통령 퇴임 1년이 된 25일 두 대통령의 고향마을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렸으나 분위기는 달랐다. 두 잔치 모두 주인공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한쪽은 활기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맥이 빠진 분위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덕실마을에서는 이날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1주년 축하행사가 성대히 펼쳐졌다. 물론 이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평소처럼 청와대로 출근, 업무를 봤다. 그는 이날 1년 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때 했던 열은 색 옥색 벵타이를 댔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비타민, 인산, 수분, 칼슘, 인산, 인산, 인산
-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인산
-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인산

아연의 보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길 10-101호